



# 첫 유럽 원정 “소수정예…고른 기회”

슈틸리케 감독, 스페인·체코 평가전 명단 20명 발표

황의조·석현준 최전방…기성용·손흥민 포함  
벤치 신세 이청용·득점력 떨어진 이정협 탈락

6월 유럽으로 원정 2연전을 떠나는 슈틸리케호가 황의조(성남)와 석현준(포항)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택했다. 소속팀에서 제대로 기회를 잡지 못한 측면 날개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과 득점력이 떨어진 ‘황태자’ 이정협(울산)은 명단에서 빠졌다.

우리 슈틸리케 축구 대표팀 감독은 23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내달 1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리는 스페인 평가전 및 5일 체코 프라하에서 치러지는 체코 평가전에 나설 20명의 태극전사를 확정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깜짝 탈락’과 ‘깜짝 발탁’을 선택했다. 무엇보다 대표팀의 부동의 측면 날개로 활약해온 이청용을 이번 원정에 데려가지 않기로 했다. 이청용은 소속팀에서 제대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고, 최근에는 사령탑과 불화설 때문에 구단으로부터 벌금 징계를 당하는 등 험악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

대신 미드필드 강화 차원에서 중국 무대에서 뛰는 ‘패스 마스터’ 윤빛가람을 발탁했다. 윤빛가람이 태극마크를 단 것은 2012년 9월 우즈베키스탄과 2014 브라질 월드컵 예선전 이후 무려 3년 8개월 만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 15일 중국 연변을 방문해 연변 푸더와 충칭 리판 경기를 지켜보며 윤빛가람과 정우영(충칭 리판)을 관찰했고, 두 선수 모두 기회를 얻었다. 수비진에서는 유럽파 왼쪽 풀백 지원될

**슈틸리케호 대표팀 명단**  
6월1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리는 스페인 평가전 및 5일 체코 프라하에서 치러지는 체코 평가전

<b>FW</b>
석현준(포항) 황의조(성남)
<b>MF</b>
한국영(카타르SC) 기성용(스완지시티) 정우영(충칭 리판) 고명진(알라이안) 윤빛가람(연변 푸더) 남태희(레키아)
<b>DF</b>
윤석영(살틴) 이흥(상주) 임창우(일화스틸) 곽태휘(일화) 김기희(상하이 선화)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 장현진(광저우 푸리)
<b>GK</b>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정성룡(가와사키 프론타레)

의 잇따른 부상과 부진 때문에 박주호(도르트문트)와 김진수(호펜하임)를 빼고 1년 2개월 만에 윤석영(살틴)을 소집했다. 차두리의 은퇴 이후 무주공산이 된 오른쪽 풀백 지원 자리에도 실형이 이어졌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 3월 평가전 때 선택했던 오재석(갑마 오사카)과 김창수(전북)를 빼고 상주의 오른쪽 풀백인 이흥을 발탁했다. 이흥 역시 2014년 10월 코스타리카 평가전 이후 1년 7개월 만의 승선이다. 최전방 공격직은 그동안 슈틸리케호의 공격을 담당해온 황의조와 석현준이 될



23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6월 스페인, 체코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유럽파 선수들을 대상으로 열린 특별 훈련에서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다. 황의조는 이번 시즌 4골 2도움의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소속팀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이적설이 돌고 있는 석현준은 이번 경기를 계기로 재도약을 꿈꾼다.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과 손흥민(토트넘)은 변함없이 신임을 얻었다. 손흥민은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와일드카드’로 일찌감치 낙점을 받았지만, 이번 원정의 중요성 때문에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4개국 대회 대신 슈틸리케호에 포함됐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청용은 김진수, 박주호와 마찬가지로 소속팀 경기에서 나서지 못할 뿐 아니라 이에 출전명단에도 포함되지 못했다”며 “소속팀에서 부진하면 발탁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정협도 득점력이 떨어져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기성용 “유럽전 기회 놓치지 싫어 입소 늦췄어요”

“국가대표 선수로서 이런 좋은 경기 기회를 놓치지 싫어서 훈련소 입소를 늦췄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뛰는 ‘슈틸리케호의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이 기초군사훈련까지 미루면서 유럽 원정 2연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주장으로 책임감과 유럽 강화와 맞붙을 기회를 놓치지 싫었다”고 말했다.

기성용은 23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발표된 스페인 및 체코 원정 평가전에 나설 20명의 태극전사 명단에 포함됐다.

슈틸리케호의 주장인 기성용은 2012

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아 5월 말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축구대표팀이 한국시간으로 6월 1일 스페인(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5일 체코(체코 프라하)와 원정으로 2연전을 나서기로 결정됐고, 기성용은 고민 끝에 훈련소 입소를 미루고 대표팀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

기성용은 내달 13일 기초군사훈련을 위해 훈련소에 입소한다. 지난 10일 시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기성용은 이날 시작된 ‘해외파 특별 훈련’에도 참가했다.

기성용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대표팀에서 뛰면서 스페인과 체코 등 강호들과

경기를 하는 경험은 쉽지 않다”며 “개인적으로도 꼭 두 팀과 경기를 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팀의 주장으로서도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에 선수들과 함께하고 싶은 의지도 강했다”며 “그래서 원정에 다녀오고 나서 내달 13일 훈련소에 입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강호와 원정 2연전을 앞둔 소감에 대해선 “일부 선수들이 빠져 100% 전력이 아닌 게 아쉽지만 스페인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며 “월드컵 최종예선을 앞두고 강호들과 경기를 치르면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황희찬 재승선…막내의 패기를 보라

신태용 감독, 4개국 친선 대비 올림픽 대표 23명 발표

광주FC 이찬동·홍준호 등 K리그 14명 포함  
내달 2~6일 나이지리아·온두라스 등과 격돌

황희찬(20·잘츠부르크)과 박인혁(21·FSV 프랑크푸르트)이 4개국 초청 축구대회에 출전하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선봉에 나선다.

신태용 감독은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수도권에서 열리는 4개국 초청 축구 친선대회에 참가할 23명의 올림픽 대표팀 명단을 23일 발표했다.

23명 중 황희찬과 박인혁 등 유럽에서 뛰는 선수 6명, 일본 3명 등 해외파 9명이 이름을 올렸고, K리그는 14명이 승선했다. 대학생은 모두 제외됐다.

광주 FC는 미드필드 이찬동과 수비수 홍준호·박동진 등 세 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격수에는 지난 1월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 두각을 드러낸 황희찬이 다시 이름을 올린 가운데 박인혁과 김현(23·제주)도 선발됐다. 황희찬은 지난 3월 알제리와 가진 두 차례 평가전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

미드필드에는 류승우(23·빌레펠트)와 박정민(22·호브로), 김민태(23·베갈로 센다이) 등 해외파와 이찬동(23·광주), 권창훈(22·울산), 박용우(23·서울) 등 국내파가 조화를 이뤘다.

수비수에는 지난해 8월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SV에 입단한 서영재(21)와 송주훈(22·미토 홀리호크)을 비롯해 홍준호(23·박동진(22·이상 광주), 심상민(23·서울), 최규백(22·전북), 정성현(22·울산), 홍준호(23·광주), 이슬찬(23·전남) 이 발

**신태용호 대표팀 명단**  
6월2~6일 4개국 초청 친선대회

<b>FW</b>
황희찬(잘츠부르크) 김현(제주) 박인혁(프랑크푸르트)
<b>MF</b>
박용우(서울) 이찬동(광주) 김민태(베갈로 센다이) 이성민(제주) 문창찬(포항) 권창훈(수원) 류승우(빌레펠트) 김승준(울산) 박정민(호브로) 최정목(상파울리)
<b>DF</b>
심상민(서울) 서영재(함부르크SV) 송주훈(미토 홀리호크) 최규백(전북) 정성현(울산) 홍준호(광주) 이슬찬(전남) 박동진(광주)
<b>GK</b>
구성윤(콘사도레 샤토와) 김동준(성남)

탁됐다. 서영재의 승선은 작년 5~6월 친선 경기 이후 처음이고, 홍준호는 소속팀에서의 활약을 발탁으로 올림픽 대표팀에 처음 선발됐다.

최규백은 작년 5월 캄보디아 및 베트남 U-23세 대표팀과 친선경기를 치른 이후 1년만에 재승선했다. 골키퍼에는 김동준(22·성남)과 구성윤(22·콘사도레 샤토와) 이 신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신태용호는 6월 2일 개막전에서 나이지리아와 맞붙고, 4일에는 온두라스, 6일에는 덴마크와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 국가대표 산실 광주 FC

이찬동·박동진·홍준호 올림픽 대표팀 승선



‘싸움닭’ 이찬동  
“기싸움 자신…광주 FC 성장 기회”



투지의 박동진  
“진짜 마지막 올림픽…잘하고 싶다”



‘첫 발탁’ 홍준호  
“190cm 큰 키 활용 공중볼 다툼 자신”

### 신인 김시우, JS컵 U-19 국제 청소년축구 우승 한몫

게 격정이다.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지만 차근차근하다 보면 될 것 같다. 올림픽이라는 게 평생 살면서 한번 나갈까 말까하는 중요한 대회다. 기싸움에서 이찬동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싶다. 상대방에게 자신감 있게 하면서 기싸움을 주도하고, 우리 팀이 힘을 낼 수 있는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주에서 세 명이 함께 대표팀에 가게 됐는데, 호흡도 잘 맞고 좋게 같다. 또 우리 팀 친구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대회 준비 잘하겠다”고 언급했다.

박동진은 “마지막이다”는 마음으로 대표팀 소집을 준비하고 있다. 박동진은 전날 인천전에서 상대 수비수의 팔꿈치에 얼굴을 맞으면서 턱관절 타박상을 입었다. 통증이 심해 밥을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지만 대표팀 합류 소식에 마음은 편하다.

박동진은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대표팀에 갔었다. 계속 불러주셔서 고마우면서도 경기장에서 더 잘했으면 하는 미안한 마음도 남는다. 대학생 때부터 대표팀에 갔는데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다. 이제는 (올림픽을 앞두고)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다. 열

심히 하는 것을 떠나서 잘하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겠다. 테크닉이나 패스가 좋은 선수는 아니다. 대신 나의 장점인 빠르고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상대에게 지지 않겠다”며 “이번에는 찬동이 형과 함께 준호형도 같이 가니까 든든하다. 특히 준호형은 처음이니까 내가 잘 도와주면서 잘하고 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홍준호는 광주의 신데렐라다. 전주대에 재학중이던 지난해 광주와의 연습 경기를 통해 남기일 감독의 눈도장을 찍으면서 광주 유니폼을 입게 됐고, 전지훈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일찌감치 한 자리를 차지했다. 공격수 출신의 홍준호는 전남과의 경기에서는 190cm의 큰 키를 활용한 헤딩골로 프로 데뷔골도 기록했었다.

홍준호는 “대표팀에 뽑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아직도 꿈같다. 프로에 와서 처음에는 많이 부족했는데 남기일 감독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기회를 주셨고, 또 열심히 해서 기회를 잡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키 큰 선수치고는 스피드도 빠르고 움직임이 좋다. 수비에서부터 패스 연결해주는 것, 공중볼을 헤딩으로 처리하는 부분에서 내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며 “처음 대표팀에 가는 거라서 걱정도 되는 데 팀 동료들이 함께 가니까 의지하면서 좋은 결과 내겠다. 긴장해서 내 것을 못 보여주고 오면 후회가 될 것 같다. 긴장하지 않고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